“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아동 기아 위기

국제사회가 수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극에 달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돕기 위해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르단 군 당국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프랑스와 함께 가자지구 해안 지역에서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구호품을 실은 구호 트럭이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마스의 갈취로 구호 트럭 진입이 어려워지자, 올해부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등도 공중 투하에 동참했다. 구호 단체들은 공중 수송 방식이 육로로 전달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위험하여 이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조건에도 구호품 공수에 나선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긴급”해서 요르단과 함께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기아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영양실조로 아동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아동 110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다.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확실한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북부의 2세 미만 아동 6명 중 1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놓였고, 앞으로 이틀 안에 일부 식량 재고가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보리는 팔레스타인의 230만 명 전체 인구가 비참할 정도로 부족한 식량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별한 조처가 없다면 광범위한 기근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구호 활동을 중단했다. WFP는 최근에는 총격전과 질서 붕괴가 심각해져 식량을 안전하게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편 145:15-16,19)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 속에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자지구의 주민들과 아동들에게 주의 손을 펴사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전쟁의 위험으로 구호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마스의 방해를 멈추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위기 앞에 많은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며 부르짖게 하소서. 그리하여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구원하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찬양 소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 온 열방까지 널리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국제이주기구, 지난해 이주민 선박 사고 사망자 8,565명

지중해 선박 사고를 비롯해 생존의 터전을 찾으려다가 각종 사고로 사망한 이주민 수가 지난해 8,565명에 이른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 경로에서 사망한 이주민 수를 집계한 지난 10년 가운데 작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전 최다 사망자 수는 2016년의 8,084명이며 올해도 이미 512명이 이주 경로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이주기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 이주 경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년 수십만 명이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프리카 북부에서 남유럽으로 향하는 지중해에서 선박 전복으로 사망했거나 실종자 수가 지난해에만 최소 3,129명으로 가장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 11:16)

하나님, 생존의 터전을 찾으려다 지중해에서 사망한 이들과 지금도 더 나은 본향을 찾아 떠나는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주민들에게 살아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지중해를 둘러싼 국가들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사 나그네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깨달아 복음 전파에 힘써 선교완성을 앞당기게 하소서.

▲ 영국 법원, 트랜스젠더 반대 설교한 거리 설교자 2명…소송 기각

영국 법원이 글래스톤베리 하이스트리트(Glastonbury High Street)에서 설교 중단을 거부한 후 체포된 두 명의 거리 설교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존 던(John Dunn)과 숀 오 설리번(Shaun O'Sullivan)은 지난 6월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법(2014) 제35조에 따라 체포됐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들어간 전단지를 나눠 주며 동성 간의 성행위와 트랜스젠더 사상을 반대하는 설교를 해 왔다. 톤턴 치안 법원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심리에서 영국 검찰(CPS)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거리 설교자들에게 법적 비용과 여행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후 사건은 기각됐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13:8-9)

하나님, 거리의 설교가에게 증거도 없이 잘못된 법을 근거 삼아 혐의를 씌워 체포했던 소송이 기각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사건에 관여된 경찰과 검찰을 부끄럽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강함을 기뻐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되는 영국에 주의 공의를 비추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4천 명 중 100명 남고 탈옥

극심한 치안 실패를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이 탈옥하고 적어도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현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전날 밤 갱단들이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국립교도소를 습격했다면서 3,8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소자 가운데 현재는 100명 정도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국립교도소를 방문한 자사 특파원이 10여 구의 시신을 확인했다면서 교도소는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안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티 정부도 성명을 통해 경찰이 국립교도소와 다른 시설을 공격한 갱들을 격퇴하려 시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 등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매체인 르 누벨리스트는 공격받은 국립교도소에 유명한 갱단 두목들과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범들이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갱단들이 교도소 공격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드론을 통해 교도소 내부 상황을 정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력 사태의 배후는 포르토프랭스 일대 갱단 연합체인 ‘G9’의 두목으로 ‘바비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지미 셰리지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일 군과 경찰에 아리엘 앙리 총리 체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주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갱단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 심각한 연료 부족, 치솟는 물가, 콜레라 창궐 속에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나라 마지막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상원 의원 10명 임기마저 종료되면서 입법부까지 공백이 생겼다. 여기에 지난달 8일 앙리 총리가 퇴진을 거부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갱단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이사야 11:6,9-10)

하나님, 또다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극심한 혼란과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아이티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모든 악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땅에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의 복음뿐임을 고백하오니 강권적인 주의 은혜를 허락하사 이들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이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어 해나 상함도 없이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드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소서.

▲ 미국 대형 약국,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 결정

미국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스가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애틀랜타 중앙일보가 최근 전했다. 두 업체 측은 모두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다"며 다만 낙태를 합법화 한 지역일지라도 규정에 따라 낙태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거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처음에는 판매 지역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CVS 대변인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의 모든 체인 약국에서 팔 계획"이며 "미페프리스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를 통해 전했다. 월그린스 측도 뉴욕·펜실베이니아·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일리노이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시편 5:4,7)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의약 업체가 생명을 해하는 낙태약을 판매할 뿐 아니라 대형 체인의 유통으로 죄를 확장하고 있는 미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미국이 낙태 합법화로 생명을 경시하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든 법에서 떠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최고가 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 파키스탄 겨울 폭우, 최소 29명 사망·50명 부상

파키스탄 전역에 폭우가 내려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고, 주택 파손·산사태로 도로가 막혔다고 3일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뉴시스가 전했다. 특히 북서부 카이베르파트툰크와주에서는 폭우로 인해 지난달 29일 이후 23명이 숨졌다.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는 홍수로 5명이 사망하고, 당국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 북동부의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피해가 보고됐다. 이번 겨울에는 보통 11월에 시작되는 겨울비가 2월이 돼서야 시작됐다. 파키스탄에서는 겨울비가 매년 큰 피해를 준다. 2022년에는 전례 없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파키스탄 대부분 지역이 황폐해져 무려 1,739명 이상이 숨졌고, 800만 명이 피난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태복음 7:24-25)

하나님, 파키스탄 전역에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가족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비를 대처할 기반이 부족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폭우로 황폐해진 지역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며 생명의 주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파키스탄 영혼들의 눈을 밝히사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는 주와 임마누엘 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주민 사역단체 1,000개 넘어…제2회 이주민 사역자 포럼 열려

한국의 이주민 사역이 30년이 경과 된 지금, 지나온 이주민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이주민 사역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이주민 사역자 포럼이 지난 19일-21일까지 설악산 스타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됐다. 아시안미션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전국 150명의 이주민 사역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해동 목사(다하나교회)가 ‘재한 이주민 사역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허은열 목사(국제이주민씨앗센터)는 ‘목회적 관점에서 본 이주민 사역자의 영성 관리’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해동 목사는 “이주민 사역은 이제 변방이 아니라 선교와 대한민국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기존의 생각과 패러다임에 갇혀 이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맞이한 귀중한 선교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민 사역을 하는 현지인 랜디 빠당 줄렉스 목사(인도네시아 선교회)와 티베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현재는 광주에서 고려인 이주민 사역을 하는 박보수 선교사가 간증을 나눴다.

특별히 이번 포럼은 자신과 사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파악하는 디브리핑을 과정과 주제 발제와 사역별&코디별 모임 등을 통해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이주민 사역을 힘차게 진행해 나갈 힘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우리나라 이주민 사역 단체는 1990년에 1개였으나, 2008년 540개, 2022년에는 1,000개로 늘어났다. 현재 한국의 인구감소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주민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주민 사역 단체도 2030년은 1,463개, 2040년 1,710개, 2050년 1,958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시안미션 측은 사역 단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재한이주민사역의 질적 부분인 컨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이상준 선교사(아시안미션 대표)는 “이제 포럼은 2회를 맞이했다. 비록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주민 사역자들이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4-16)

하나님, 한국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단체가 힘차게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주민들이 증가하는 이때 전도의 열망으로 전심전력하여 귀중한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라도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온 열방 구석구석에 거침없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 과테말라 성서공회 성경 프로그램…"이들에 성경적 가치관 심어"

빈곤과 갱단들의 폭력이 난무한 과테말라에서 영국 성서공회의 성경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미국 종교 전문 매체 RNS가 4일 전했다.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빈곤과 혼란을 견뎌온 과테말라의 도시들은 대부분 갱단과 연관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다. 갱단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농촌 도시와 빈민가 아이들을 범죄 행위에 연루시킨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테라 누에바 지역의 믹스코학교는 성경 프로그램 '오픈 더 북'을 도입했다. 오픈 더 북은 성경 속 90가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가르친다. 이를 도입한 엘메스키탈 공립학교의 교장은 "성경 프로그램이 갱단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태복음 13:31-32)

하나님, 오랜 내전으로 인한 가난과 갱단들의 범죄로 소망을 찾기 힘든 과테말라에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돌봐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복음이 심어지고 믿음이 자라나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와 같이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깃드는 의의 나무 되게 하소서.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 아이들을 이용하는 갱단들의 악행을 끊어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제 되어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아일랜드, 작년 낙태 건수 1만 건 초과

아일랜드의 지난해 낙태 건수가 1만 건이 넘으면서 낙태 합법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 수치는 아일랜드 국가의료서비스(HSE)가 독립 의원 캐롤 놀란에게 제공한 2023년 1-11월 아일랜드 의사들의 청구자료에 제시된 9,218건보다 많다. 2021년 4,577건에 비하면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아일랜드 생명존중단체인 '프로라이프 캠페인'은 이 통계는 병원에서 시행된 낙태가 포함되지 않아 실 낙태 건수는 1만 건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는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임시적으로 의사가 원격으로 낙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의사들이 낙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8)

하나님, 태아의 생명을 법으로 보호했던 아일랜드에 낙태 합법화로 인해 잉태된 아이가 엄마의 손에 무수히 죽어가고 있음을 고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위정자와 의료진의 심령에 찔림이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악법이 멈춰지고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